정은보 "상장폐지·IPO 개선안, 올해 가장 역점두고 추진"

〈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MSCI 등 선진지수 편입 마케팅 박차
파생상품 10종 야간거래 도입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올해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증시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투자자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국거래소의 4대 핵심전략으로 소개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공개(IPO) 기업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요예측 참여자격 및 방법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코너스톤투자자(공모주 일부 청약을 약정하는 투자계약), 사전수요예측 제도 등을 도입해 주관사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주식시장 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거래소(ATS)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수기업 선정·표창,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해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세제 혜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 지수사용권 개방을 통해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의 해외 상장을 허용하는 한편 뉴욕, 런던 사무소를 개소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선진지수 편입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 10종에 대한 야간거래(오후6시~익일 오전6시)도 도입돼 밤 시간대 변동 리스크 헷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덱스 사업 및 IT 인프라 수출 등 거래소의 수익모델을 다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라인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가상자산 상품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거래소의 사업다각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테슬라·엔비디아 '흔들'… 서학개미는 '줍줍'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1.3억弗, 엔비디아 1.1억弗 매수
주가 급락에 단기 반등 기대감 풀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관련 이미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2월 4~10일) 테슬라를 1억365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 주가의 하루 변동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TSLL)도 8504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1억1188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주가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그래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도 2694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서학개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은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5.17% 급락했다. 이후에도 전기차 시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350달러 선까지 밀려났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3일 '딥시크 쇼크'로 116.66달러까지 하락하며 전 저점이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약간 반등하고 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테슬라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은 부진했다. 독일에서 전년 동월 대비 59.5%, 프랑스에서 63% 넘게 감소했으며, 중국에서도 11.5% 줄었다. 특히 주력 차종인 모델3와 모델Y의 판매량이 33%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IB) 스티펠은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기존 492달러에서 474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스티펠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테슬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실적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아르거스의 선임 애널리스트 제임스 켈러허는 "AI 분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게임과 자동차 산업에서도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iM증권, 비대면 스마트지점 계좌개설 행사

신규 고객, 국내주식 수수료 0.01%

/iM증권

iM증권은 이달 24일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iM증권 스마트지점(비대면)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내 주식 0.01%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는 3개월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한 번만 거래하면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069%로 적용한다.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간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전 수수료는 90% 우대한다. 신용·주식담보 대출 시에는 금리를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간 연 4.7%로 우대해 적용한다.

iM증권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iM하이'를 통해 이벤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을 0.02%로 제공하고, 환전 수수료를 97% 우대하는 특별 혜택을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간 제공한다. 단 한 번이라도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추가로 1년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3%로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예탁원 "국채통합계좌 누적거래액 60조"

지난달 말 기준 보관잔고 2.6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통합계좌 이용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보관 잔고 2조6000억원, 누적 거래 금액 60조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기구(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지난 6월 말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보관기관 선임과 개별 계좌 개설 등 절차 없이 바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채통합계좌 이용 규모는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국채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다고 발표한 지난해 10월부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거래 확대로 월별 결제 금액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달 런던에서 WGBI 산출기관인 FTSE 러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유럽 최대 금융사인 HSBC의 임원진을 만나 국채통합계좌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세계 5위 국부펀드 운용국 쿠웨이트의 예탁결제회사인 KCC의 두아이즈 라에드 알살레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양 기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순호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이번 면담 내용 중 국채통합계좌 운영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 관련 기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한국 국채 시장의 국제화를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공개

모범납세자 우대 등 5종 세정지원
표창 기업에 8종 인센티브 제공

한국거래소가 3단계 평가체계 방식의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표창 기업에 대한 8가지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외부 연구용역과 밸류업 자문단과 함께 논의됐으며, 올해는 경제부총리상 2개사, 금융위원장상 3개사, 거래소 이사장상 5개사를 표창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감리 제재 시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상장·공시 분야는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도 적용된다. 이외 홍보·투자 분야의 혜택으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시 우대도 적용된다.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8종의 인센티브도 발표됐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에 유가증권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이나 최근(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하은 기자